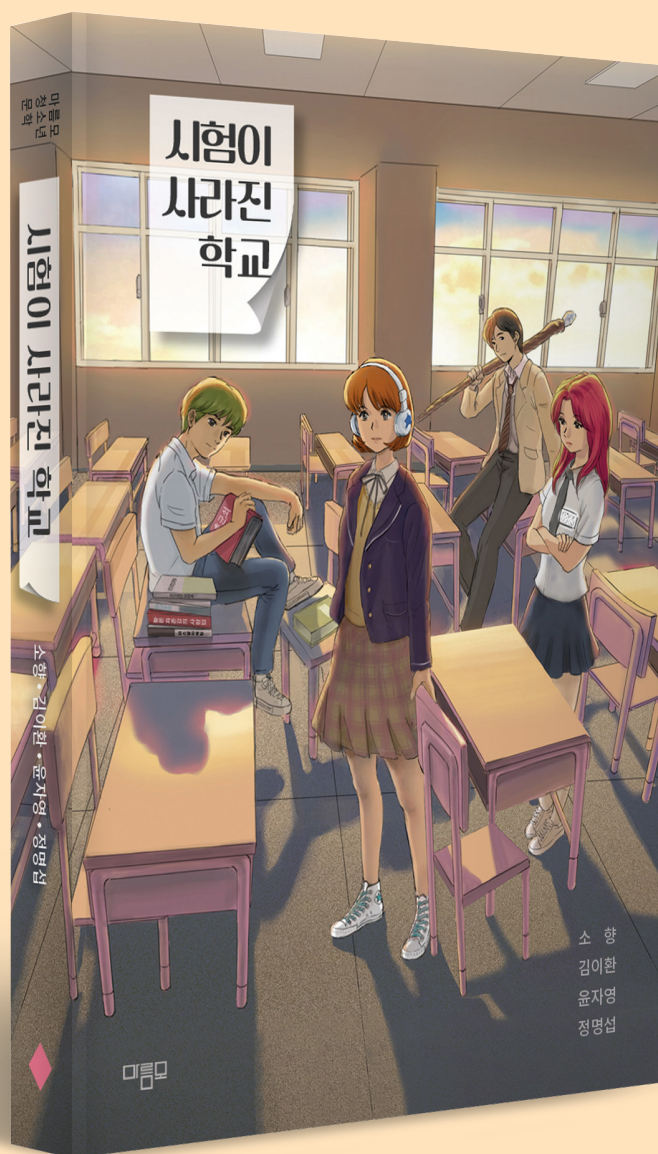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지도안

작성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시험이 사라진 학교

마름모 청소년 문학

소향·김이환·윤자영·정명섭 지음

#시험 #학교 #경쟁 #공정 #불법 #성장

학생용 및 교사용 독서지도안 다운로드
blog.naver.com/marmmopress/223173341825

“세상에서 시험이 사라지면 좋겠다!”

4인 4색 작가들의 색다른 상상

〈나의 유토피아 방문기〉 소향

중학교 3학년 함지원은 작곡에도 소질이 있고 수학에도 재능이 있는 모범생이지만, 부모님의 설득과 권유에 휩쓸려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한다. 그런데 기말시험을 치르는 어느 날, 시험을 망친 함지원은 도망치듯 자신의 아지트로 달려갔다가 시험이 사라진 평행세계로 건너가게 되는데…… 주인공 함지원의 아버지 말대로 과연 세상에 “시험과 자격증만큼 공정한 건” 없을까? 불공정과 불법이 알게 모르게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목매다는 ‘시험’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김민준 던전 일기〉 김이환

마족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판타지 세계에서 김민준은 마계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다. 대학에 입학하려면 시험 대신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훌륭한 마법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과연 민준은 무사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시험이 사라진 학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까? 사지선다형의 시험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일까?

〈띠링, 이름표가 울리면〉 윤자영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지만 유일하게 과학에는 흥미를 보이는 고등학교 2학년 노하린이 ‘국내 최초 시험이 없는 학교’로 전학을 온다. 노하린은 시험이 없는 학교라면 자신도 모범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부푼 꿈을 안고 첫 수업에 임하는데…… 과연 시험이 사라진 학교는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 시험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무엇이 시험을 대체하게 될까?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시험’이라는 제도 대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짜 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마더의 결단〉 정명섭

때는 지금으로부터 79년 후, 다니엘라와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의 인공 자궁에서 태어나 10학년인 지금까지 같은 학교에 다닌다. 로봇과 인공지능들은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도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로봇의 보호(지배) 아래 상상력을 제한받는 아이들은 ‘시험’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만약 세상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시험’을 어떻게 재정의할까? ‘시험’이 곧 ‘경쟁’과 동의어가 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시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독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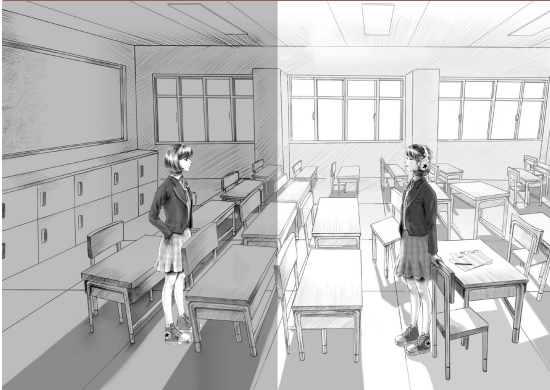
단계	차시	활동 내용
독서 전	1	생각 열기 《시험이 사라진 학교》의 표지(제목과 표지 이미지)로 내용 유추하기
		나는야 명탐정! 각 작품의 대표 삽화(일러스트)와 제목을 바탕으로 이야기 추측하기
독서	2~3	〈나의 유토피아 방문기〉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현실 공간과 평행 세계의 인물 분석하기 · 적용하기: 나의 유토피아 공간은 어떤 곳인지 생각해보기 · 생각 넓히기: 홍길동과 울도국 관련 글을 통한 생각 확장하기
	4~5	〈김민준 던전 일기〉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내용 OX 퀴즈로 되짚어보기 · 적용하기: 우리가 만드는 던전 모험 지도 · 생각 넓히기: 진정한 협동이란?
	6~7	〈띠링, 이름표가 울리면〉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숨겨진 의미 파악하기 · 적용하기: 우리의 정의 사전 만들기 · 생각 넓히기: 영화 속 거닐기
	8~9	〈마더의 결단〉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시험과 경쟁의 의미 생각하기 · 생각 넓히기: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 감상하기
독서 후	10~12	나는야 명탐정! 독서 전 활동으로 진행한 ‘나는야 명탐정!’ 활동을 통해 추측했던 내용이 실제 책 내용과 유사한지 비교해보고, 저자가 말하고자 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기
		《시험이 사라진 학교》 PMI 토론 방법으로 확장하기 · PMI 토론 방법으로 시험이 없는 세계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 피드백 활동



1. ‘시험이 사라진 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봅시다.
2. 표지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3. 평소 ‘시험’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느낌 혹은 관련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봅시다.

나는야 명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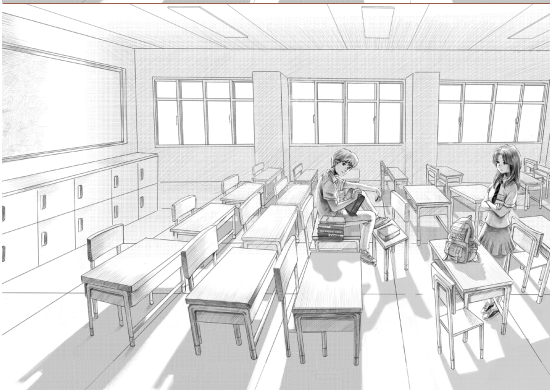
각 작품의 대표 일러스트를 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추측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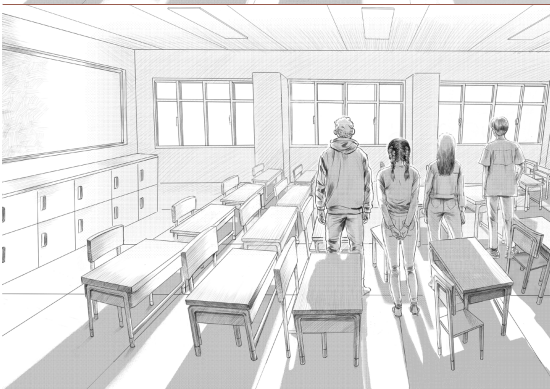
나의 유토피아 방문기



김민준 던전 일기



띠링, 이름표가 울리면



마더의 결단

1. 시험이 존재하는 현실 공간과 시험이 없는 유토피아인 평행 세계의 인물을 비교해봅시다.

	현실	유토피아
나(함지원)	·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과학고 진학하고자 함 · 갑자기 사라진 윤후를 궁금해함 · 자신이 작곡한다는 사실을 윤후에게만 이야기 함	· 숙제와 입시 공부가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함 · 자신이 윤후의 수많은 친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에 낙담함 · 공부와 시험 없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 분이 켄끄러워짐
윤후	· 나(함지원)와 둘이서만 릴레이 작곡을 함 · 2학년 기말고사 이후 손톱을 물어뜯고 항상 초 조한 표정을 지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임 · 예고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의견 충돌 때 문에 힘들어함	· 시험이 없는 평행 세계에 만족하며 현실 세계로 넘어가고 싶어하지 않음 · 나(함지원)와만 하던 릴레이 작곡을 시험 없는 세계의 친구들과 다 같이 하고 있음
장진호	· 작은 스케치북에 선생님 몰래 자동차를 그림 · 평소에 아이들과의 교류가 없음 ·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스케치북을 뺏으면 폭발 함	·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자동차 그림을 그리며 자 신의 재능을 존중받고 있음 · 자신의 그림을 친구들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함
다은	· 나(함지원)와 같이 과학고에 지원하려 함 · 과학고에 함께 지원하는 나(함지원)와 약간 켄 끄러운 관계를 형성함(늘 빈정거리는 말투를 구 사함/ 나(함지원)를 견제하고 신경 씬)	· 나(함지원)에게 아주 친한 사이끼리 하는 친근 한 말투로 대화함 · 공부가 아닌 춤에 흥미를 갖고 자신의 장기를 개 발하고 있음
온유	·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아이 · 외국에서 살아 온 경험으로 영어를 잘함	· 나(함지원)에게는 현실 세계의 온유와 똑같이 보임

2. 주인공 함지원과 윤후가 갔던 유토피아는 시험이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였습니다. 나의 유토피아는 어떤 곳인지 상상해봅시다.

“지원이 너는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니?”

“네? 글썄요.”

“그렇지. 그렇게 멍때리고 있으니 들었을 리가 없지.”

선생님이 고개를 몇 번 젖고는 말을 이었다.

“아까 말한 대로 유토피아는 1516년에 쓰인 토머스 모어의 소설 제목이다. 원래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아니다 또는 없다’를 뜻하는 ‘우(ou)’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topos)’가 합쳐진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해. 소설 속에서는 사유재산이 없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로 묘사되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지. 그러므로 이상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 즉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인 것이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꿈꿔볼 수는 있을 거야. 아마 각자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겠지?”

도덕 선생님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나에게 유토피아란 어디일까.

—〈나의 유토피아 방문기〉 14쪽

3. 다음 두 개의 제시글을 읽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곳 평행 세계는 내가 살던 세계와 겹으로 봤을 때는 같아 보인다. 학교도, 아이들도, 우리 집도.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달랐다. 처음에 평행 세계의 아이들은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애들은 대화하고, 몰두하고, 느끼고, 쉬고, 잠을 자며 성장했다. 윤후가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과 달랐다. 윤후와도 달랐다. 이곳이 마냥 좋지 않았다.

나도 안다. 내가 그동안 시험이라는 제도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다는 걸. 학교와 학원은 오로지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대비했다. 중학생인데 온전한 중학생처럼 살지 못하고 반은 고등학생인 듯 살았다. 가방은 무거웠고, 잠은 부족했고, 늘 시간에 쫓겼다. 어쩌면 시험이라는 제도는 공정하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유토피아 방문기〉 42~43쪽

① 유토피아 공간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함지원)가 유토피아 공간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 윤후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더 이상 윤후의 특별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 둘째, 공부로 늘 인정받던 나(함지원)가 시험과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② 주인공 함지원은 유토피아에서 결국 현실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봅시다.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복숭아꽃이 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동굴 너머의 마을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속의 일을 잊은 채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훗날 그 마을을 다시 찾으려 하였으나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상향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우리 문학 작품에 나타나게 됩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도 이 무릉도원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균은 ‘율도국’을 ‘산무도적(山無盜賊), 도불습유(道不拾遺)’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산에는 도적이 없고,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조차 없다’는 뜻으로,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구(大司寇·지금의 법무부 장관) 벼슬을 할 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허균이 율도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율도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며,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이겠죠? 이처럼 ‘율도국’은 허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길동이 집을 떠나는 이유와 조선을 떠나 율도국으로 향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그것인데요.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생겼던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자식으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동이 집을 떠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또한 임금으로부터 병조판서라는 직책을 제수받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홍길동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굳이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5222900>

③ 홍길동은 자신이 속해 있던 조선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도국’이라는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홍길동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tip]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이 자신의 집안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계된 가정과 사회 제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홍길동은 자신의 현실 세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자신만의 유토피아인 울도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1. 〈김민준 던전일기〉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OX 문제에 답을 해봅시다.

1	나(김민준)는 마법사 윤리를 제일 어렵고, 고대언어가 제일 쉽다.	X
2	레드 드래곤 대학은 입학시험이 없고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O
3	교장 선생님은 드래곤과 마족 혼혈이지만, 드래곤으로 변신할 수 없다.	X
4	쇼는 다크 엘프라서 덩치도 크고 마법도 잘한다.	X
5	민준과 친구들은 던전에 들어온 둘째 날부터 8레벨 몬스터 슬라임한테 죽을 뻔했다.	O
6	생명석은 몬스터 내부의 마력이 응축되어 있는 보석이지만 팔 수 없다.	X
7	‘큰 대문 여관’의 주인 아저씨는 ‘소나무 숲’이라는 이름의 여관을 추천해줬다.	X
8	민준이네 파티는 성 중심부에서 전설 속의 모험가 나호란과 마주쳤다.	O
9	민준이네 파티는 모험을 함께 하면서 싸움이 있었다.	O
10	성철이도 여름 방학 동안 파티원들과 성공적으로 모험을 마치고 돌아왔다.	X

2. <김민준 던전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던전 모험 여정을 담은 모험 지도를 조별로 완성해봅시다.



(예시 그림)

3.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마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던전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중 성철이네 파티와 민준이네 파티는 같은 던전 모험을 떠났지만 상반된 결과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들이 성공적으로 모험을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봅시다.

성철이가 던전에 간 소문을 들었는데 성철이와 친구들은 망했다고 한다. 우리가 간 ‘느릅나무 숲 던전’이 아니라 엘프 친구들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보라색 연못 던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5레벨 몬스터만 몇 마리 잡았으나. 그걸로 입시는 어렵도 없다. 던전에서도 계속 아이들끼리 싸우기만 했고, 특히 나 대신 힐러로 들어간 엘프는 아이들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지금은 말도 안한다고 한다.

싸울 수도 있다. 우리도 던전에서 많이 싸웠으니까. 하지만 던전은 어둡고 답답한 곳이니까 짜증이 나도록 서로 이해해야 하지 않나? 비싼 돈 주고 가이드까지 구해서 내려갔는데도 몬스터를 못 잡았다는데, 내 생각엔 가이드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우리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던 여관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나, 지나가다 만난 모험가들처럼 좋은 모험가도 많지만, 던전 상황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들을 노리는 엉터리 가이드도 많으니까.

—〈김민준 던전일기〉 100~101쪽

민준이와 친구들이 성공적으로 모험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든 공간인 던전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모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의견이 부딪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점차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 서로를 돕고 속마음을 공유하며 협동심을 기르며 모험에 임했기 때문이다.

[tip] 중요한 것은 민준이와 친구들이 협동심을 바탕으로 모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철이네 파티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을 지도해주시면 됩니다.

1. 다음 질문을 통해 〈띠링, 이름표가 올리면〉의 내용을 되짚어봅시다.

① 노하린이 시험 없는 학교에 전학 온 첫날, 짝꿍 이지후는 “지옥의 학교에 온 걸 환영해”라고 말합니다. ‘시험 없는 학교’를 ‘지옥의 학교’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험 없는 학교’에서는 시험은 없지만, ‘공부나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을 관찰(감시)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는 곧 학교 내에서 급식의 순서, 수평관의 사용 등 학교생활에서의 특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② 노하린은 그토록 기대하던 마라탕을 받았지만, 맛있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내 차례가 되어 마라탕을 한가득 받았다. 국물을 입에 넣었다. 마라탕의 알싸한 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도 맛있지 않았다. 식욕도, 배고픔도 다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탁, 하고 테이블에 놓았다.

저 멀리 휴지로 테이블을 닦고 있는 여학생이 보였다. 나는 거의 먹지 않은 식판을 들고 일어나 퇴식구로 가서 음식물을 쏟아버렸다.

—〈띠링, 이름표가 올리면〉 126쪽

4.2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맛있는 메뉴의 급식을 먹을 생각에 다른 친구들을 밀치며 줄에 끼어 들다가 급식을 받아 오는 여학생과 부딪쳤다. 노하린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엎질러진 국물을 같이 닦아주고 싶었지만, 점수를 깎는 선생님의 리모컨을 보자마자 자신의 점수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설 수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③ 연설이 끝난 후, 학생회장은 노하린에게 학생회장에 출마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2.3점인 노하린이 학생회에 더 어울린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노하린, 너 학생회장 출마해봐라.”

“전 겨우 2.3점인 학생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더 어울리지. 그럼 난 간다.”

—〈띠링, 이름표가 올리면〉 162쪽

시험 없는 학교의 평가 방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뀌어야 할 점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2. <띠링, 이름표가 울리면>에 등장하는 각 단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자유의지	[tip] 본문 내용 중 노하린과 친구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책 속의 ‘자유의지’가 등장하는 문맥에서 스스로 그 의미를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공정과 공평	[tip] 비슷하지만 다른 이 단어들의 차이를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사전적 정의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열심히 수행하여 받은 점수에 따라 급식을 받는 것) 공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모든 학생이 따뜻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람다움	[tip] 본문 내용 중 노하린이 연설을 하며 사람다움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책 속에서 사람다움의 예시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 사회의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알고, 이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 (점수에 따라 급식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3.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좋은 학교란 무엇인지, 학생들이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발표해봅시다.

[tip]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학생들처럼 학교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키팅 선생님의 등장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웰튼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사회와 비슷한, 아이비리그 진학을 위한 공부와 성적에 몰두하는 학교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웰튼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에게 맹목적인 공부가 아닌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띠링, 이름표가 울리면>에서 노하린과 친구들은 학교의 평가 방법과 부조리함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며 바꾸어나가고자 노력합니다. 학생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계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더욱 풍부한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다음 제시글을 읽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우리끼리 시험을 치면 어떨까?”

“우리끼리?”

카스트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하자 다니엘라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교장은 경쟁이 나쁜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그런데 말이야,”

다니엘라가 마른침을 삼켰다.

“그게 꼭 나쁜 걸까?”

“경쟁은 나쁜 거라고 했어.”

다현이 반박했다.

“왜?”

“서로 싸우게 만드니까. 그리고 갈등과 욕심을 불러오잖아.”

“너랑 나랑 시험을 치면 싸울까? 아니면 같이 공부할까?”

“같이 공부하겠지.”

다현의 대답을 들은 다니엘라가 바로 말했다.

“같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구분된다고 우리가 싸우겠어? 아니면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겠어?”

“네가 나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축하해주겠지.”

“맞아. 교장은 계속 경쟁이 나쁜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전 세대 사람들이랑은 달라. 경쟁이 지나쳐서 문제지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아빠가 그랬어. 서로 경쟁해서 뭐가 부족하고 나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잠자코 듣고 있던 마윌이 물었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더 열심히 하지.”

—〈마더의 결단〉 194~195쪽

① 시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정리해봅시다.

시험의 순기능	시험의 역기능
· 시험을 통해 오히려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격려할 것임 · 지나친 경쟁심은 나쁘지만, 경쟁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장점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함 · 특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서로 싸우게 만들 · 갈등과 욕심을 불러옴 · 이로 인해 이전 세대는 전쟁을 일으켰음 · 시험은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

“첫 번째 문제는 네가 제시해. 우리가 풀어볼게.”

마운의 말에 다니엘라는 옆구리에 팔을 올린 채 생각에 잠겼다. 마른침을 삼킨 다니엘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친다. 내가 낼 문제는 이거야.”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장벽 밖에는 뭐가 존재할까?”

학생들 스스로 치는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 시험은 이전 시대의 시험과는 다를 것이다.

—〈마더의 결단〉 207쪽

② 소설의 마지막에 등장한 ‘시험’은 이전 시대의 시험과 어떻게 다를까요?

③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새롭게 결말을 작성해봅시다.

2. <마더의 결단>에서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마더’가 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소설 속 ‘마더’처럼 발전하여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별거벗은 세계사: 역대급 신기술이 돌변하면? 인공지능의 또 다른 얼굴…!

<https://youtu.be/vsIiBnsZGks>



별거벗은 세계사: 인류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술! 압도적인 능력치를 지닌 ‘인공지능’의 힘!

<https://youtu.be/3GFESoFlh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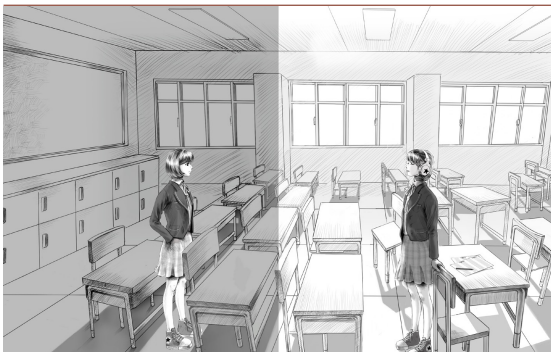
① 영상을 보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딥 페이크 기술	
머신 러닝	
딥 러닝	

② 영상을 보며 인공지능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정리하여 비교해봅시다.

인공지능의 밝은 면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니’의 경우 별도의 행동 없이 음성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함 ·인공지능이 접목된 cctv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등등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딥페이크 기술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성범죄에 활용될 수 있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챗봇 중 챗gpt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생성형 AI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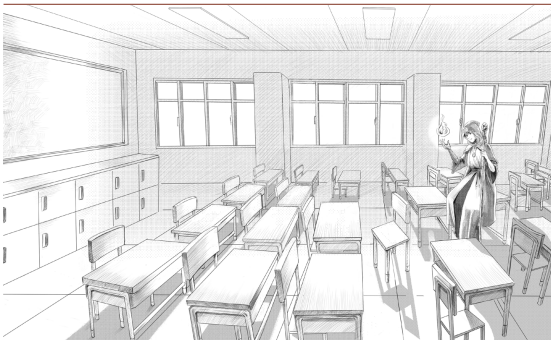
1. 독서를 시작하기 전, 각 작품의 대표 일러스트를 보고 내용을 추측해보았습니다. 나의 추측이 맞았나요? 달랐던 추측 내용과 각 작품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봅시다.



나의 유토피아 방문기

나의 추측과 같았나요? 혹은 달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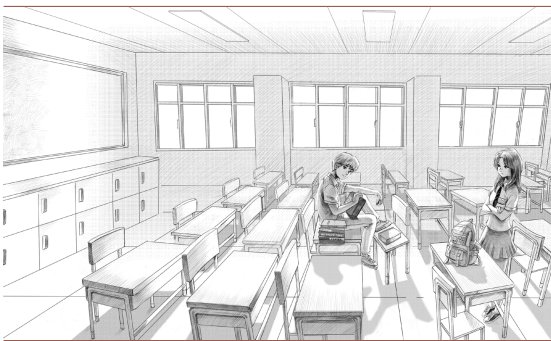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김민준 던전 일기

나의 추측과 같았나요? 혹은 달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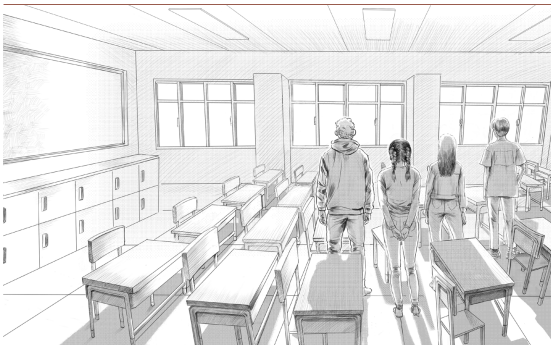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띠링, 이름표가 울리면

나의 추측과 같았나요? 혹은 달랐나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마더의 결단

나의 추측과 같았나요? 혹은 달랐나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1. PMI 토론 방법을 활용하여 ‘시험이 사라진 학교’에 대한 생각을 확장해봅시다.

PMI 토론이란?

아이디어의 좋은 점(P), 나쁜 점(M), 흥미로운 점 혹은 대안 제시(I)를 살펴본 후,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며 판단하는 기법

PMI 토론 진행 방법

- ① 주어진 상황, 주제에 대한 좋은 점(P)을 나열한다.
- ② 주어진 상황, 주제에 대한 나쁜 점(M)을 나열한다.
- ③ 주어진 상황,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점 혹은 대안을 제시(I)한다.
- ④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2. 토론을 통해 ‘시험이 사라진 학교’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조별로 정리해봅시다.

시험이 사라진 학교?		
좋은 점(P)	나쁜 점(M)	흥미로운 점(I)

3. 우리 사회에서 시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시험과 경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 발표해봅시다.